

지역 소식 통

정읍 신태인 파크골프장
명품 코스로 4월 1일 재개장

정읍시 신태인 파크골프장이 잔디 보호와 시설 정비를 위한 임시 휴장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본격적인 운영을 재개한다. 이번 재개장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됐다.

휴장 기간 동안에는 골프장 내 잔디를 집중 관리하고 모래를 고르게 살포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시는 이를 통해 골프장 전반의 품질을 높이고, 골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플레이 환경을 조성했다.

신태인 파크골프장은 동진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품은 36홀 규모의 코스로, 전홀이 독립형으로 조성돼 쾌적하고 편안한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2023년 9월에는 도내 최초로 36홀 공인구장 인증을 획득하며 명품 파크골프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는 연간 약 5만 명의 동호인이 찾는 전국적인 인기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최대 200만원 지원

고창군이 노후주택 등에 급수관 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급수관 개선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투입해 세대당 최대 200만원(공용급수관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에도 6000만원을 들여 대명연립 등 총 5개소·85세대에 급수관 개선사업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2순위)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관으로 설치된 주택, △(3순위)2000년 이전 준공한 주택 등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우선 지원 가능하다.

다만 5년 이내 지열보일러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4년 3분기 생활인구 전북 1위

부안군, 2분기 월평균 37만3516명 · 3분기 40만1087명 기록

부안군은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2~3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시군 중 2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산정 결과 부안군 생활인구는 2024년 2분기 37만 3516명, 3분기 40만 1087명으로 정읍·남원·김제시 및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군 등 전북 자치도 10개 인구감소지역 중 2분기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기존 주민등록 인구에 근무,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인구와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외국인 등을 포함한 인구를 말한다.

이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일정 빈도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것으로 최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할 계획이다.

부안군의 2분기 연속 생활인구 1위 달성은 생활인구 확보 방안 발굴 보고회와 생활인구 확보방안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관·과·소·읍·면별 생활인구 확보 방안을 발굴·추진한 점이 주요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국제화추진위, 국제교류 발전 방안 논의

지역 언론·학계·문화예술 등 대표자들 참석... 국제화 전략 모색

정읍시가 2025년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지역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열고, 다양한 교류사업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읍시는 지난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정읍시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언론, 학계, 문화예술, 사회단체,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읍시의 국제화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

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뿐 아니라 기술이전 등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으며 향후 국제화 사업이 내실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철호 위원장은 "정읍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도시들과의 교류는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며 "위원회도 정읍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국제교류 사업인 자매도시 사진교류전, 국제청소년화대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대회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

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뿐 아니라 기술이전 등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으며 향후 국제화 사업이 내실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철호 위원장은 "정읍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도시들과의 교류는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며 "위원회도 정읍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화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천년의 숨씨’,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수상

부안군은 군이 개발한 공동브랜드 ‘천년의 숨씨’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공동브랜드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은 대중적인 명품 브랜드를 발굴하고 국내 소비 수준 및 품질의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취지로 제정된 상으로 대한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 (사)한국방송신



문연합회가 후원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개발된 ‘천년의 숨씨’는 산, 들녘, 바다에 풍요로움이 넘쳐나고 인간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부안에서 천년의 숨씨로 재배된 부안 쌀의 우수성을 캘리그라피 형태로 간결하게 표현했으며 오랜 전통까지 담아낸 브랜드이다.

이상원 농촌활력과장은 “부안군 공동브랜드 ‘천년의 숨씨’는 부안 쌀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있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단풍미인쇼핑몰, 홈페이지 개편

정읍시, 4월부터 본격 추진... 실질적 쇼핑 편의 요소 강화

정읍시의 대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단풍미인쇼핑몰이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면 개편에 나선다. 매출 상승에 발맞춰 편의성과 디자인을 대폭 개선한 새 홈페이지는 오는 7월 1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쇼핑 환경을 구축하고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웹사이트 속도 개선, 간편 로그인과 간편결제 도입, 다중 배송지 가능 추가 등 실질적인 쇼핑 편의 요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단풍미인 브랜드에 걸맞은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고 정읍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 소비자에게 더욱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단풍미인쇼핑몰은 최근 정기 기획전을 중심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추석 기획전에서는 1억 16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15%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고, 올해 설 기획전에서도 8200만원의 매출로 전년 설 대비 13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이러한 성장세에 박차를 가하고 고객 만족도와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풍미인쇼핑몰 관계자는 “최근 이어진 매출 상승세에 맞춰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노인복지관 2곳 전국 평가서 ‘A등급’

정읍시의 노인복지 수준이 전국적으로 우수함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노인복지관 평가에서 정읍시가 위탁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2곳이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0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기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했다.

평가 항목은 △시설·환경 △재정·조직 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 △시설운영 전반 등 총 5개 분야로, 각 항목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A 등급을 받은 정읍시노인복지관과 북부노인복지관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들 복지관은 노년사회화 교육, 건강지원사업, 기능회복 프로그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결과는 두 복지관이 평소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꾸준히 노력한 덕분”이라며 “정읍시도 노인복지관과 협력해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실무중심 국가예산 전략 교육 실시

고창군이 지난 27일 국가예산 사업 담당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정부 예산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중심의 전략적인 국비 확보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 실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박철균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협력단장이 강사로 초청됐다. 박 단장은 지난해 4월 전북도 경제협력단장으로 파견되어, 2025년 전북도 국가예산 역대 최대 규모인 9조원 확보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 날 박 단장은 “정부예산의 이해 및 국비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을 실무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국가예산 사업 건의 자료 작성법, 중앙부처·기획재정부·국회 단계별 예산심의 대응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고창군은 사상초유의 감액예산안 의결 등 어려운 국가위기 속에서도 2025년도 국가예산을 전년 대비 8.8% 증가한 역대 최대 3,844억원을 확보했다.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5월까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현지 전략회의 등을 통해 부처 단계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유관병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